



송미령 장관, 사과 저장·입고 현장방문,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북 문경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찾아 사과 저장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12월 사과 출하량은 3만 9천 톤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
- 2025년산 사과 저장량(12월~7월 출하)은 23만 톤(전년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사과 수급상황 안정 전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수)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고,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월~7월 출하)을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장 출하기의 사과 공급량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2월에도 전년 이상의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과 저장량 전망(KREI) : ('24) 229.5천톤 → ('25) 228.6천톤 (전년比 0.4%↓)

** 12월 사과 출하량 전망(KREI) : ('24) 38.5천톤 → ('25) 39.3천톤 (전년比 2.2%↑)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260)